민주, 염천 장외투쟁에 법리 공세 병행

〈炎天〉

텃밭 호남서 미디어법 무효 여론몰이
사전 투표 논란 재반박, 컴퓨터 기록 제시

미디어법 원천무효를 위한 대여투쟁을 전개중인 민주당이 4일 텃밭인 호남에서 여론몰이에 나서는 한편 사전투표 의혹 공세를 강화하며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박주선, 장상 최고위원을 비롯해 유선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이낙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 강운태·김성곤·우윤근·서갑원 의원 등과 함께 광양·순천·여수시를 돌며 미디어법 무효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정 대표는 이날 캠페인에서 "이번에 통과된 언론악법은 야당 대표가 결사반대하고, 단식투쟁까지 하면서 안 된다고 했는데도 한나라당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국민이 야당에 힘을 보태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악법처리를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어 5일에는 순천-여수 복선전철 현장과 목포-광양 고속도로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목포에서 홍보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며 6일에는 광주로 올라와 시민사회-종교계 간담회, 5·18 국립묘지 참배, 광주시 홍보 캠페인, 광주·전남 당원 규탄대회를 연이어 가질 계획이다.

민주당이 장외투쟁에 돌입한 지 일주일 만에 광주·전남지역을 방문하게 된 것은 전통적인 지지층 결집을 통해 여론몰이에 나서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또 미디어법 장외투쟁의 시선을 끌기 위해 휴대전화 인터넷에 접속해 미디어법에 대한 찬반투표를 하는 '모바일 국민투표'를 검토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미디어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게 나타나는 만큼 반대 여론을 결집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미디어법 무효' 서명운동 방식의 경우,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통해서도 시민들이 서명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날 방송법 '사전투표' 의혹이 조작됐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재반박하며 법리 공세도 강화했다.

민주당은 전날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방송법에 대한 표결 불성립을 선언할 당시 이미 68명이 투표를 마친 것으로 나타난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재투표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표결 불성립 선언 1분여 전에 있었던 '투표 다시 해달라'는 이부의장의 발언에 따라 투표개시가 선언됐다는 논리로 사전투표 의혹을 반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채증단장 전병헌 의원은 이날 '언론악법 원천무효 및 민생회복 투쟁위' 2차 회의에서 "'투표 불성립에 의해 재투표해 달라'고 말한 것이 공식 투표개시 시점"이라고 일축했다. 전 의원은 "한나라당은 투표 불성립 때문에 재투표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며 "투표 불성립 선언 이전에 '투표 다시 해달라'는 발언을 공식 재투표 선언으로 인정한다면 일사부재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또 당시 전자투표 로그기록을 제시하면서 "이 부의장의 재투표 개시선언 뒤 (전광판에서) 첫 번째로 불이 켜진 사람은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이라며 "박 의원 이전에 투표한 사람들은 모두 사전투표"라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미디어법 무효'투쟁에 나선 민주당이 4일 순천에서 정세균 대표와 박주선, 장상 최고위원, 유선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이낙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 강운태, 김성곤, 우윤근, 주승용, 강기정, 이윤석, 김영록, 서갑원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들을 대상으로 미디어법 무효화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한 "민주당은 왜곡조작·좌파 공룡 정당"

민주 대리투표 공세에 원색적 비난 맞서

민주당의 미디어법 무효 장외투쟁 및 대리투표 공세에 한나라당은 비난과 투표 방해 행위 공세로 대응을 이어갔다. 4일에는 '육식성 좌파 공룡정당'이란 원색적 용어까지 동원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미디어법 표결 과정과 관련해 궤변을 늘어놓고, 사전선거운동을 위한 흑색선전과 표적투쟁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역사상 가장 비열한 투표방해 행위를 했다"고 밝힌 뒤 미디어법 승복과 가투 중단을 요구했다.

장광근 사무총장도 모 신문이 민주당 등 진보진영을 '육식성 좌파'로 규정한 내용의 칼럼을 인용하며 "민주당은 자신의 대리투표 행위를 거꾸로 한나라당에 뒤집어 씌우고 있다. 이는 왜곡과 조작을 서슴지 않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육식성 좌파 공룡의 모습"이라고 비난했다.

당 '불법 투표방해행위 진상조사단' 채증팀장인 박민식 의원은 민주당의 투표방해 행위와 관련한 영상물을 공개한 뒤 민주당의 대리투표 공세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의원은 동영상을 토대로 "미디어법 표결 당시 민주당 의원이 나경원·김재경 의원 자리에서 재석·반대 버튼을 눌렀다"며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민주당의 투표방해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 박병석·김재균·조정식·장세환,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및 한나라당 의원 자리에서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은 민주당 의원이 재석·반대 버튼을 눌렀다고 주장하고 "민주당 백원우 의원의 경우 현기환 의원의 투표단말기를 파손했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이 투표 당시 자신의 의석에 앉아 있지 않았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박 의원은 "문제는 '누가 대리투표를 했느냐'인데 민주당의 주장은 '누가'라는 주어가 없다"며 "개인적인 감으로는 통상의 대리투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소송으로 치면 대단히 약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더 나아가 한나라당은 민주당 백원우·전병헌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및 투표방해 혐의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김태원·조해진 의원의 터치 스크린을 건드렸다"는 민주당의 주장과 관련해 당사자로 지목된 이화수 의원도 민주당에 대한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DJ 튜브통해 미음 섭취… 병세 호전"

박지원 "의지 강해 툴툴 털고 일어날 것"

신촌세브란스 병원에 입원 중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유동식을 섭취하며 기력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4일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링거로 영양을 보충받았지만 어제부터 음식물 투여가 이뤄지고 있고, 혈압 등 모든 수치가 정상"이라며 "의지가 강한 분이기 때문에 툴툴 털고 일어나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의 현재 상태와 관련, "오랫동안 위와 장이 운동하지 않는 상태였지만, 어제 오전에는 물도 제대로 투입되고 음식도 거부반응 없이 상당량이 투입됐다"며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언론의 '위독하다'는 보도는 솔직히 좀 지나친 면도 있었다"면서도 "모두 염려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국민과 세계 각국의 성원에 감사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의 치료 일정에 대해선 "많은 차도가 있지만 아무래도 당분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전 대통령 측 최경환 비서관도 이날 "김 전 대통령이 그제 오후부터 콧속에 연결된 튜브로 유동식인 미음을 섭취하고 있다"며 "유동식을 섭취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거부반응도 일어나지 않는 등 병세가 빠르게 회복 중"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李대통령 "돈 내는 대통령 되고 싶었다"

재산 기부 소회 뒤늦게 밝혀져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7~14일 유럽 3개국 순방중 참모들에게 전 재산 사회기부에 대한 소회와 동기를 밝혔던 것으로 3일 뒤늦게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스웨덴 방문중 참모들과 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국가 지도층 인사들과 친인척들이 돈을 받았다고 언론에서 자꾸 나왔었는데 나는 재임중 돈을 받는 대통령이 아니라 돈을 내는 대통령이 되고 싶었다"고 말했다고 순방을 수행했던 한 참모가 전했다.

이 같은 언급은 전 재산 기부에 대해 일각에서 정치적인 해석을 내놓고 있는 데 대해 순수한 의도를 설명함과 동시에 전직 대통령들과의 차별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한 참모는 "국가지도자들이 돈 문제로 구설수에 오르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한 것"이라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순방 전날인 지난달 6일 논현동 자택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산 331억4천200만원을 재단에 출연, 청소년 장학과 복지사업에 쓰는 방식으로 사회에 기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연합뉴스

"100m 시야 인식 못할때 자동차 전조등 켜야"

주승용, 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4일 안개·강우·강설 때와 터널을 운행할 때, 흐린 날씨나 도로주변 환경의 장애로 인하여 100m 전방의 시야가 분명하게 인식되지 않는 경우 등에 자동차의 전조등을 켜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야간이나 안개·폭우 또는 강설 등으로 전방 100미터 이내 도로상의 장애물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자동차의 전조등을 켜도록 하고 있다. 주 의원은 "현행법에 100미터 이내의 장애물이 확인될 수 없을 정도의 악천후에만 차의 전조등을 켜도록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것"이라며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시야 확보가 조금이라도 어려운 경우에는 전조등을 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제출 사유를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